

저판 니트의 자랑 - JBKS 2010의 우수한 전시품들 <2/5>

◎ 니트편(編) - 무봉제나 표백과 니트의 융합 등으로 다양

저판 베스트 니트 셀렉션 2010(Japan Best Knit Selection 2010 : JBKS 2010)에서는 니트 존(knit zone)에 31개사, 컷-소 존(cut-sew zone)에 13개사, 양말 존에 11개사에 시마세이키 제작소(島精機 製作所) 1개사가 찬조 출품(贊助 出品)을 하였다. 니트 존에서는 9개사가 새로 출품하여 지난번보다 5개사가 늘었다.

야마가타현(山形縣)에 있는 요네도미 섬유(米富 纖維)는 창업 이래로 독자적인 텍스타일을 개발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3 ~ 12 게이지(gauge) 편침까지 토탈(total) 41개 설비를 살린 코스 게이지(coarse gauge)의 많은 소재를 사용하여 트위드 라이크(tweed-like)한 텍스타일로 만든 니트 재킷(knit jacket)으로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부가 가치를 높게 표현하여 매혹시키고 있다.

가가와현(香川縣)에 있는 나카 니트는 본사 빌딩(本社 building) 내에 자사 공장(自社工場) KMS가 있는데 오리지널 상품의 기획, 생산, 판매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어패럴 메이커(apparel maker)이다. 실(yarn)로부터 제품까지 일기 통관(一氣 通貫 :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뚫고 나감)으로 신속하면서도 고품질의 상품을 제안하고 있다.

포백(布帛 : 織物) 라인도 정비하여, 니트와 포백을 결합(docking)시킨 상품이나, 직물로 만들어 붙인 입체적인 니트를 만드는 것이 장기(長技)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슬럽사(slub絲)와 라메사(lame絲 : 金, 銀 등의箔으로 된 실)를 사용한 트위드조(Tweed調)로 짠 재킷(jacket) 등을 출품하였다.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 他社로부터 의뢰받은 제품을 개발 설계로부터 제품까지 떠맡음)을 의식하여 새로운 거래선을 개척하고 있다.

야마가타현(山形縣)의 니트 오카자키(knit 岡崎)는 무봉제 니트(無縫製 knit)의 실적과 이에 관련된 노하우(know-how)나 양산에 정평이 있는데, 무봉제가 아니고는 매우 좋은 착용감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루엣이 아름다운 레이디스 아이템(ladies item)을 보이는

등 고급 내복을 보여주고 있다.

봉제 공정이 없는 만큼, 후공정도 적어지는 이점을 살려, 단 사이클(短 cycle)로 그 시기에 필요한 신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컷-클로스(cut-cloth : 자투리)가 없으므로 실크나 캐시미어와 같은 고급 소재를 낭비 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디자인의 무봉제 레이디스(無縫製 ladies)를 출품하였다.

오사카후(大阪府)에 있는 테트라 퍼스트사는 편성 기술자들의 집단으로 출발한 독특(unique)한 회사이다. 편성 기술에만 전념하며, 소재가 갖고 있는 특징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고 “불품이 좋다.”고 평하는 신상품을 개발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 가지 사이즈에서 한 색으로 10장 이상의 주문을 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니트 × 포백(布帛 : 織物), 니트 × 저지(jersey : 부드럽고 두꺼운 양복지), 니트 소품(knit 小品)의 3개 카테고리(category)로, 샤프하면서도 보기 좋은 어른들의 캐주얼 스타일을 만들어 내어, 단골 고객을 늘리고, 거래를 깊은 속까지 파고 들어가고 있다.♣